

# SM C&C LETTER

2024.01 | No.171

이/번/달 줄/거/리

신년특집 ① | CEO LETTER

신년특집 ② | 새해 된 김에 스엠일주

CEO LETTER

감흥 없이 덮었던 책을 우연히 다시 읽다  
마음이 동해버린 날이 있습니다. 그저  
웃으며 봤던 옛 영화를 다시 보다 의외의  
장면에서 코끝이 찡해진 날도 있습니다.  
익숙했던 어떤 것에서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일은 생각보다 짜릿합니다.

얼마 전 박정운의 <오늘 같은 밤이면>을  
우연히 다시 들었습니다. 1991년 발매된  
박정운의 2집 앨범 타이틀곡으로, 당시 박  
정운을 일약 스타덤에 올렸을 뿐 아니라  
많은 청춘들의 감수성을 건드렸죠. 저라고  
달랐을 리가요. 도입부에는 목소리를 눌러  
낮춘 후 얼마나 그댈 그리워하는지 몰라,  
하고 부르며 멋을 냈어요. 후반부에는  
멈춰진 시간 속에 나 그대와 영원토록  
머물고 싶어, 지르며 스스로에 취하길 여러  
날이었죠.

옛 노래가 주는 향수가 있습니다. 가슴을  
등등 울리는 록 발라드 전주가 반가웠고,  
이제는 고인이 된 박정운 특유의 음색도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으며 가장  
크게 와닿은 것은, 가사였습니다.

기나긴 기다림 속에 지쳐도  
그대 외롭다고 눈물짓지 마  
언젠가 그대의 두 손을 잡고서  
함께 걸어갈 테야

여느 때보다 지친 하루를 보냈던 탓일까요.  
위로가 필요했던 탓일까요. 30여년 전엔 헤  
어진 연인 정도로 해석했던 노래 속 '그대'가  
나 자신이자, 가족이자, 친구이자, 함께 일하  
는 동료로 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오늘 같은 밤이면>은 다시금 자  
주 찾아 듣는 노래가 됐습니다. 사실은 다짐  
이기도 합니다. 함께 해야지, 이해해야지, 힘  
이 돼야지, 하는. 저에게 새로운 감정을 안겨  
준 이 노래가 누군가에게는 반가운 추억일  
수도, 또 누군가에게는 해묵은 서사일 뿐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2024년에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손 내밀 수 있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메시지를 눌러 담아 이  
노래를 올립니다.

2024년 1월, 대표이사 남궁철

# 새해 된 김에 스엠일주

“우리 팀 막내는 회식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팀장님은 금전적 보상과 시간적 보상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할까?”  
 “다른 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새해를 핑계로 SM C&C 구성원에게 물었습니다. 작심일년(作心一年)을 꿈꾸며 세운 계획부터, 어김없이 맞아버린 K-직장인으로써의 일상을요. 1월 1일에 듣는 음악은 무엇인지, 원하는 회사 복지는 무엇인지, 출퇴근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회식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종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며 건강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생각에는 격하게 공감하며 조금 더 친밀해질 2024년을 기대합니다. 연령대 혹은 연차별 차이를 살펴보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새해 된 김에 스엠일주를 시작합니다.

2023년만족도

3.8점

그렇다면,  
연차별 차이는?

새해 첫곡은?



우주소녀  
이루리



부석순  
파이팅해이지  
(Feat. 이영지)



데이식스  
한페이지가 될수있게

지난해 회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사건) BEST 3

40.0%

회식, 워크숍 등  
사내 활동



24.8%

복지비 입금 등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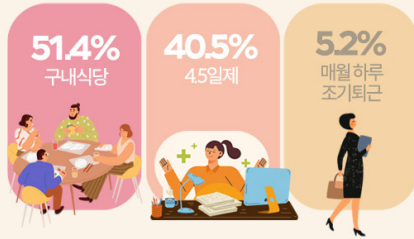


13.8%

수주, 우수사원 선정 등  
성과



## 회사에도입됐으면하는 복지



매일 평균

# 58.16분

동안(편도 기준)  
출근하는 SMC&C 구성원들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워라벨**

## 회식, 언제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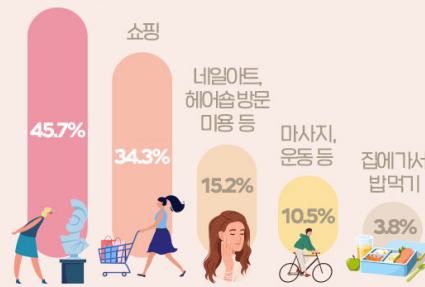
59.0%



41.0%

## K-직장인은 점심시간에 '이것'까지 한다

전시,팝업스토어체험 등



## 업무보상으로 원하는 것



88.6%



11.4%

## 직장 생활 목표



가늘고 길게  
69.5%

굵고 짧게  
30.5%

## 내가 선호하는 상사 스타일은?



- ✓ 너도? 나도! 직장 생활 스트레스 원인은?
- ✓ K-직장인이 선택한 최악의 요일은?
- ✓ 극강의 밸런스 게임, 연차별 차이는?

## 스트레스 완화는 금융 치료로!



**재미있는 결과 보러 가기**

## [신년 특집] 새해 된 김에 스엠일주

# 새해 된 김에 스엠일주

“우리 팀 막내는 회식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팀장님은 금전적 보상과 시간적 보상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할까?”  
“다른 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새해를 핑계로 SM C&C 구성원에게 물었습니다. 작심일년(作心一年)을 꿈꾸며 세운 계획부터, 어김없이 맞아버린 K-직장인으로써의 일상을요. 1월 1일에 듣는 음악은 무엇인지, 원하는 회사 복지는 무엇인지, 출퇴근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회식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종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며 건강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생각에는 격하게 공감하며 조금 더 친밀해질 2024년을 기대합니다. 연령대 혹은 연차별 차이를 살펴보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새해 된 김에 스엠일주를 시작합니다.

**조사대상**

SM C&C 구성원 398명(응답률 52.8%)  
- 남성(34.8%)/여성(65.2%)  
- 20대(24.8%)/30대(51.0%)/40대(23.3%)/50대 이상(1.0%)

**조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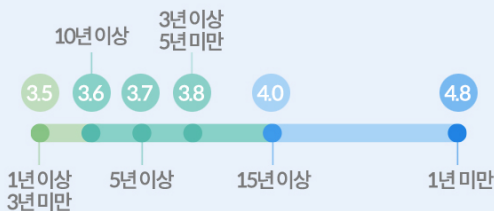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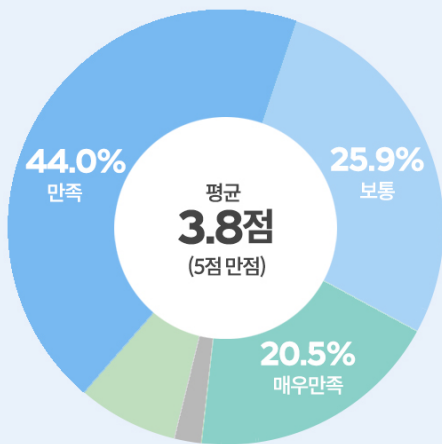
2023년 12월 13일~21일

**조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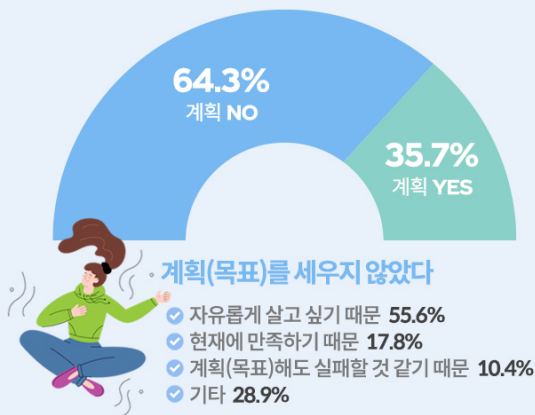
SM C&C 설문조사 플랫폼 킬리언 프로(Tillion Pro)

# 2023년 잘 가고, 2024년 어서 오고!

## 2023년 만족도는?



## 2024년 계획은?



### 계획(목표)를 세웠다

- 운동 및 다이어트 72.0%
- 저축 및 재테크 52.0%
- 어학 및 자격증 41.3%
- 독서 30.7%
- 금연 및 금주 10.7%
- 기타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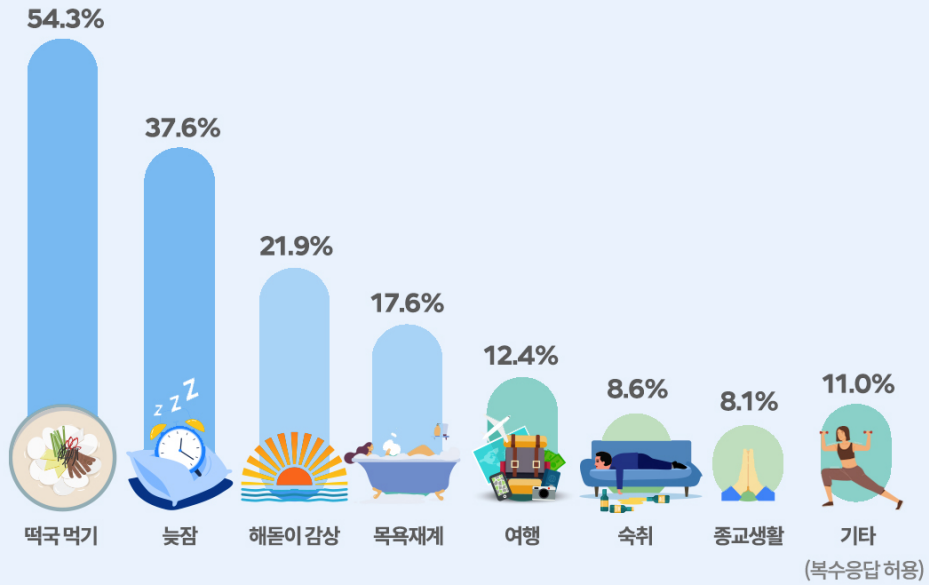
(복수응답 허용)

SM C&C 구성원에게 **2023년 만족도**를 물었습니다. 만족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까지 점수를 매겨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SM C&C 구성원의 2023년 만족도는 **3.8점**입니다. 연차별 만족도 차이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생활 1년 미만이 4.8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그 뒤를 15년 이상(4.0점), 3년 이상 5년 미만(3.8점), 5년 이상(3.7점), 1년 이상 3년 미만(3.5점)이 있었습니다.

구성원들의 **새해 계획(목표)**는 무엇일까요? 우선, **계획을 세웠다**는 응답은 **전체의 35.7%**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중 **무려 72.0%**가 **운동 및 다이어트**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여행, 투잡, 결혼, 로또 1등 등이 있었습니다.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64.3%**는 **새해 계획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자유롭게 살고 싶기 때문(55.6%)**을 꼽았습니다. 기타 의견이 전체의 28.9%를 차지하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들 중에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설문조사가 12월 중순에 진행된 만큼, 새해 계획을 세우기에는 이른 감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연말 연초에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외에도 '상황에 맞춰 선택하고 해결해 나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 1월 1일 루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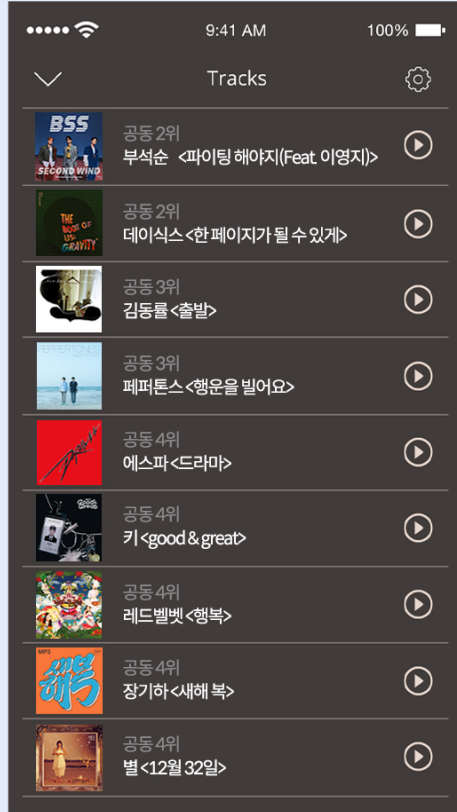


벌써 2024년도 2주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처음 떠오른 **1월 1일**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앞선 설문조사에서 SM C&C 구성원은 1월 1일 루틴으로 **떡국 먹기(54.3%)**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모처럼의 휴일이기도 하니 **늦잠을 선택한 응답자도 37.6%**에 달했습니다. 그 뒤를 **해돋이 감상(21.9%)**, **목욕재계(17.6%)**, **여행(12.4%)** 등이이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지난달력 찢기**, **불필요한 물건 버리기**, **가족간 새해 목표 발표하기**, **헬스**, **등산** 등이 있었네요.

## SM C&C 플레이리스트



**믿거나, 말거나!** 새해에 처음 듣는 노래가 그 해의 운세가 된다는 말이 있죠. 언제부턴가 1월 1일 전용 노래를 고르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SM C&C 구성원에게도 물었습니다. 많은 응답자들이 각자의 노래를 공유했는데요. 그 중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10곡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선택을 받은 노래 외에도, 의외의 선곡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 **류이치사카모토 <Aqua>**를 소개합니다. 듣는 순간 한강 위 괴물이 떠오르는, 영화 <괴물>에 사용된 사운드트랙입니다. <Aqua>를 꼽은 응답자는 영화 속 주인공들이 힘차게 달려가듯 새해를 맞고 싶다는 뜻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월 1일에 태어나 늘 **생일 축하 노래**를 듣거나, “**오케이 구글, 새해에 어울리는 노래 틀어줘~**”하고 부탁한다는 기타 의견도 있었습니다.



## 2023년 회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경험)은?

40.0%

회식, 워크숍 등  
사내 활동



24.8%

복지비 입금 등 보상



13.8%

수주, 우수사원 선정 등  
성과



11.8%

입사



29%

승진



7.6%

기타

리프레시 휴가,  
조직개편 등



인생 첫 워크숍에서 기대 이상의 재미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워크숍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니 업무를 할 때도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일산 워크숍! 모두가 단합하는 모습! 사회초년생으로서 감동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회사 전체 워크숍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일도 바쁘고 피곤한데 워크숍을 한다가에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참여하니 즐겁더군요. 여러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업무에서 **성과**를 냈고, 확실한 보상도 받았습니다. 애사심 향상!

입사 이래 최대의 수주 **성과**를 냈습니다. 이보다 더 부듯한 순간이 있었을까요!

한 해가 끝나가는 시점에 SM C&C에 **입사**하게 됐는데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맞고 좋아서 행복합니다.

**복지포인트**로 닌텐도를 샀더니 삶의 만족도가 두 배! 복지포인트가 아니었다면 구매 시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잘 누리지 못했던 복지들이라 아쉬웠는데,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제도**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대단한 이벤트보다 팀원들과 동고동락했던 **소소한 순간**들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 회사의 최(고)애(정하는) 장점은?



28.6% 마음잘맞는 동료

25.2% 사무실 위치

24.3% 유연한 근무

14.3% 수평적인 조직문화

4.3% 커리어에 도움을 주는 업무

3.3% 기타

### 회사에 도입됐으면 하는 복지는?

51.4% 구내식당

40.5% 4.5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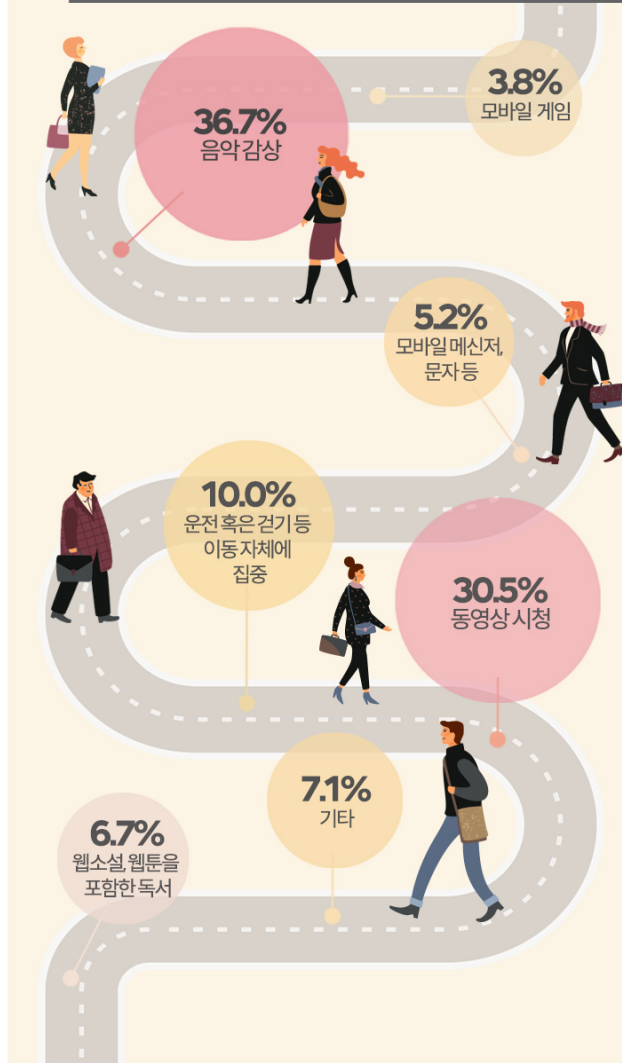
5.2% 매월 하루조기퇴근

1.4% 매일 채워지는 쉼터&스낵바

1.4% 기타



## 쉿, 울지마나의 작은 출퇴근



평균  
**58.16분**  
(편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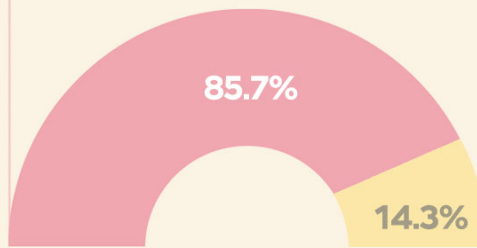
SM C&C 구성원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58.16분(편도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22.9%가 평균치인 60분을 출퇴근에 소요한다고 답했죠. 응답자 가운데 **출퇴근 최저 시간은 10분**으로 밝혀졌습니다. 단 한 명의 응답자가 최저 시간을 기록했네요.

출퇴근 시간에 주로 음악을 감상한다고 답한 사람은 77명으로 전체의 36.7%를 차지합니다. 종전의 출퇴근에 가장 짧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응답자는 그 시간을 이동 자체에 집중한다고 답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잠, 외국어 공부, 시사 라디오, 주식창확인, 보기의 모든 것을 돌아가면서** 함 등이 있었습니다.

## 기다리던 점심시간! 식당과 사무실의 거리는?

### 가까울수록 좋다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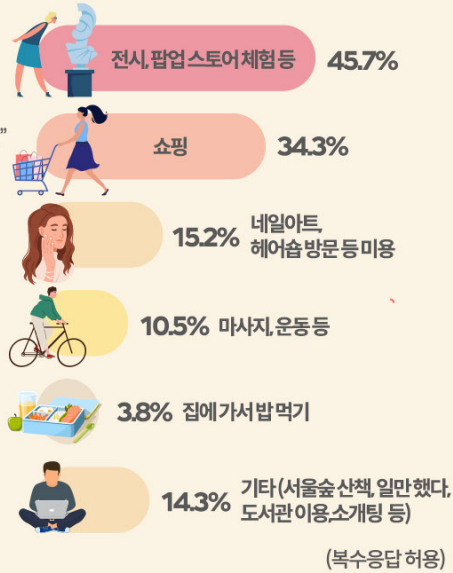
“얼른 먹고 쉬고 싶어서!”  
“식사 후 서울숲 한바퀴가낙. 운동을 하려면 식당은 가까워야...”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우니까.”  
“배고파서 8282 먹고 싶어요.”



### 멀수록 좋다 의견

“식당까지 오고 가는 길에 리프레시가 되니까!”  
“찐 맛집 찾는 재미가 있다.”  
“사무실 씨, 점심시간만이라도 멀어져요 우리.”  
“일과시간 중 걸을 일이 거의 없으니까 점심시간에라도...”

## 소중한 점심시간!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



팝업 스토어의 성지로 통하는 서울숲 인근 사옥 덕분일까요. 소중한 점심시간을 활용에 전시, 팝업 스토어 등을 즐겨봤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5.7%를 차지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서울숲 산책, 도서관 이용 등이 있었습니다.

## SM C&C PICK 서울숲역 맛집 6!



**SM C&C PICK 서울숲역 (점심) 맛집**을 공유합니다. 상대적으로 모객수가 많은 성수 사옥 인근의 맛집으로 구성됐습니다. ('없음', '잘 모름' 등의 답변 제외)

인근 맛집이 많은 탓에 소수 의견 역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레시피**가 점유율 6.8%로 1위에 등극했습니다. "가성비 최고", "정갈하고 맛도 좋은 집밥 st" 등의 추천사가 이어졌습니다. **정선부뚜막**은 6.1%로 아쉽게 2위에 머물렀습니다. 강경 한식파를 자처하는 응답자들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죠. 3.8% 점유율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맛집들도 있습니다. **서울숲쭈꾸미**는 사무실과 거리가 가깝다는 점과 중독성 있는 맛, 가성비가 주효하게 작용했습니다. **웨이리손칼국수보쌈**을 추천한 한 응답자는 "보쌈 사랑해!"라고 고백을 해주셨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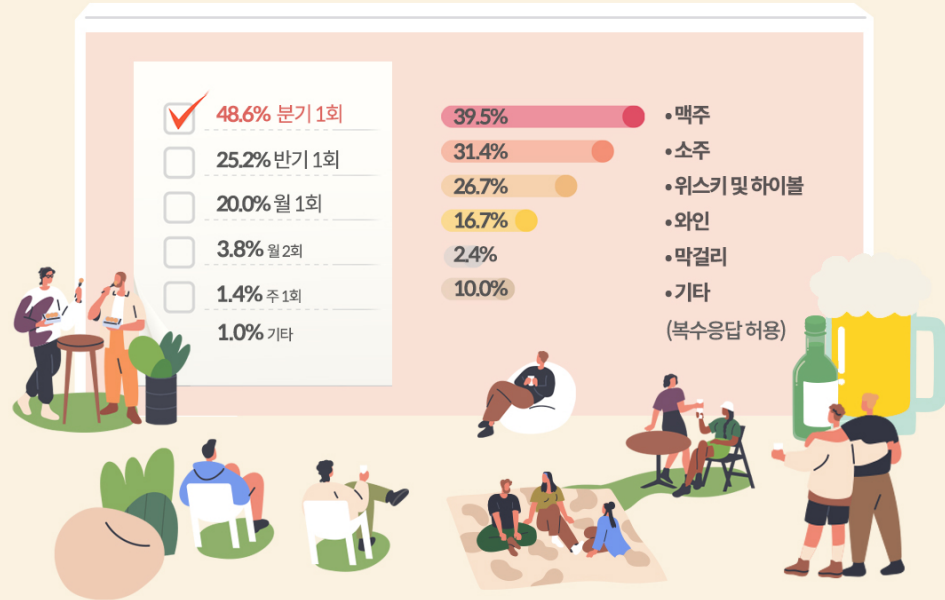
**버섯집**은 건강하고 담백한 맛으로 SM C&C PICK이 됐습니다. 또 **정돈 성수점**은 비교적 비싼 금액대에도 불구하고 맛이 보장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사옥 지하에 위치해 편리하다는 장점도 주효했습니다.

## "회식,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점심 회식 **59.0%**

**41.0%** 저녁 회식



**점심 회식**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59.0%**로, 저녁 회식을 선호하는 응답자(41.1%)보다 17.9%p 높았습니다. 연령에 따른 차이도 보였습니다. 20대, 3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각각 59.6%, 67.3%)이 점심 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비교적 간단한 회식을 원하는 요즘의 트렌드와 상응하죠. 반면 40대 응답자의 61.2%는 저녁 회식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식 빈도 수는 **분기 1회**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48.6%**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연 1회 등도 있었습니다.

회식시 선호하는 주종을 묻는 질문에는 **맥주와 소주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기타의견도 전체의 10%가량에 달했는데, 이 중 **약 62%는 무알코올, 음료 등 술 없는 회식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선호하는 회식 빈도 수에 따른 선호 주종 조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빈도 수와 상관없이 다양한 주종을 선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유독 주 1회 회식을 원하는 응답자의 선호 주종은 **맥주(66.7%)와 소주(33.3%)**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 일주일 중 가장 힘든 요일은?

상대적으로 일이 더 집중되는 요일

이틀이나 일했는데 아직 이틀이 더 남았어요...

평일 중 하루만 지나갔다고...? 실화냐...?

금요일인 줄 알았는데 목요일이러니?

차가 너무 많이 막히고 사람이 많아서 힘듭니다

**월요일 51.0%**

**수요일 20.5%**

**화요일 13.8%**

**목요일 9.5%**

**금요일 2.9%**

**일요일 2.4%**

**토요일 0%**

말 그대로 월요일. 백신도 안 들어요

주간 루틴 업무가 몰린 요일

월요일은 어찌어찌 넘겼거늘... 가장 일할 날이 많은 남은 느낌이랄까

금요일은 희망이라도 있지. 목요일은 체력도, 희망도 바닥.

한 주간 일하며 누적된 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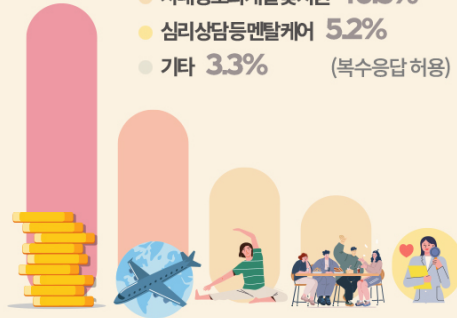
## 내 직장 생활 스트레스의 원인은?

- 과도한업무 42.4%
- 상사/동료와의관계 28.6%
- 혼잡한출퇴근길 27.6%
- 비즈니스등대외관계 20.0%
- 기타 11.9% (복수응답 허용)



##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것같은 사내 복지는?

- 금융치료 76.2%
- 리프레시휴가 38.1%
- 운동등체력단련지원 18.1%
- 사내동호회개설및지원 10.5%
- 심리상담등멘탈케어 5.2%
- 기타 3.3% (복수응답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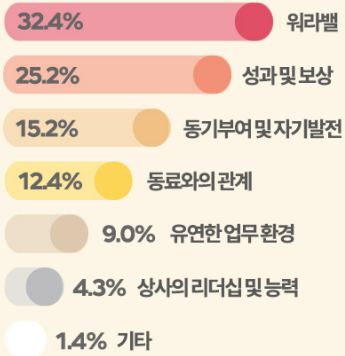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없을 순 없겠죠. 원인도 다양할 텐데요. 조사 결과 과도한 업무(42.4%), 상사/동료와의 관계(28.6%), 혼잡한 출퇴근길(27.6%) 순으로 높았습니다. 원인 중 기타 의견으로는 **멋지게 해내고 싶은데 잘되지 않을 때, 업무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 등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연차별 차이입니다. 15년 미만까지는 과도한 업무가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지만, 15년 이상은 상사/동료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48.0%)가 높았습니다.

스트레스 완화에 **금융 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76.2%**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리프레시 휴가(38.1%), 운동 등 체력 단련 지원(18.1%), 사내 동호회 개설 및 지원(10.5%) 등을 바라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재택근무, 업무량 조절, 연락 단절 가능한 휴가, 사무실 이전, 소통 활성화 등 다양한 기타 의견도 확인했습니다.

##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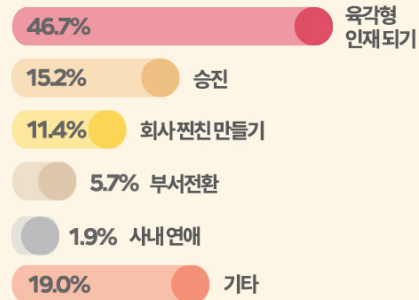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워라밸**(일과 일상의 밸런스)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32.4%**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성과 및 보상(25.2%), 동기부여 및 자기 발전(15.2%), 동료와의 관계(12.4%), 유연한 업무 환경(9.0%), 상사의 리더십 및 능력(4.3%) 순이었습니다.

다만 **사업Unit별로 약간의 차이**도 눈에 띄었는데요. 광고 및 여행사업Unit 구성원의 절반 이상(각각 62.0%, 56.5%)이 워라밸과 함께 성과 및 보상을 중요시한다고 꼽은 반면, 매니지먼트와 비즈니스 Unit(대표 직할 포함)은 워라밸과 동기부여 및 자기발전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각각 60.0%, 56.1%)

또 콘텐츠사업Unit은 비등한 다른 보기와 달리 전체의 40%가 동기부여 및 자기발전에 대한 니즈를 보여줬습니다. 또 기타 의견으로는 **업무에 대한 의지와 관심, 연봉** 등이 있었습니다.

## 새해 된 김에 SM C&C에서 이루고 싶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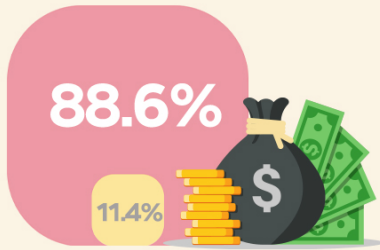


SM C&C 구성원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소망은 무엇일까요?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6.7%가 육각형 인재가 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육각형이란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는 여섯 개 축이 모두 꽉 찬 상태, 즉 완벽하다는 뜻인데요. 새해를 맞는 구성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육각형 인재 뒤를 **승진(15.2%), 회사 찌친 만들기(11.4%), 부서 전환(5.7%), 사내 연애(1.9%)** 등이었습니다.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도 19.0%에 달했는데, 이들은 **연봉 인상과 무탈한 일상을** 주로 희망했습니다. 이외에도 **나만의 경쟁력 키우기, 사육연애** 등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 업무 보상으로 원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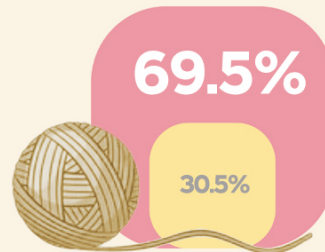


- 금전적보상
- 시간적보상

금전적 보상(86.6%)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시간적 보상(11.4%)을 선호하는 응답자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모든 연차에서 비슷한 비율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중 시간적 보상에 대한 니즈가 비교적 높은 연차는 1년 미만(21.4%), 10년 이상(20.0%), 3년 이상 5년 미만(19.2%)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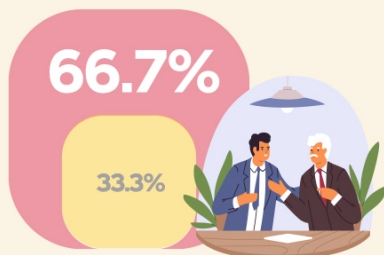
## 직장생활 목표는?

가늘고 긴 직장 생활을 희망한 응답자가 69.5%로, 굵고 짧은 직장 생활을 선호하는 응답자(30.5%)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다만 응답 간 격차는 연차별로 차이를 보였는데요. 15년 이상이 92.0% : 8.0%(가늘고 길게 : 굵고 짧게)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고, 연차가 낮아질수록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가늘고 길게
- 굵고 짧게

## 선호하는 상사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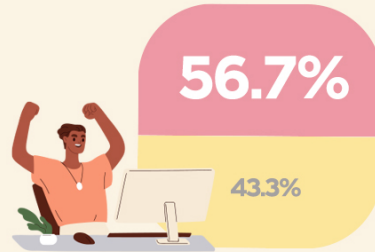
- 믿고 맡겨주는 방목형 st
- 일일이 알려주는 빨간펜 선생님 st

응답자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빨간펜 선생님형 상사보다 방목형 상사를 선호하는 비율이 66.7%로 더 높았습니다. 다만 중간 연차라고 볼 수 있는 5년 차를 기점으로 답변이 극명하게 나뉜 것이 눈에 띄는데요. 5년 미만에서는 두 상사 스타일이 비교적 비등한 비율로 나뉘는 반면, 5년 이상에서는 62.3%가, 10년 이상부터는 80.0% 이상이 방목형 상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선호하는 후배스타일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후배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56.7%로, 무조건 따르는 후배를 선호하는 응답자보다 13.4%p 높았습니다. 특히 10년 이상에서는 주도적인 후배를 선호하는 비율이 77.1%, 15년 이상에서는 85.0%로 다른 연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일단 "이건 어때요?" 주도적인 후배 ■  
일단 "네!" 따르는 후배 ■

새해와 K-직장인에 관한 설문조사로 진행된 새해 된 김에 스엠일주 어떻게 즐기셨나요? 꽤 비슷한 의견들을 마주하는 재미도, 전혀 다른 의견에 놀라는 재미도 있으셨길 바랍니다. 동시에 소수 의견에도 따뜻한 이해를 더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끝.

## 지난호 Best 3 다시 보기



### COVER STORY

2023 SM C&C는 특! 특! 터진  
POP-C.O.R.N.

[+자세히 보기](#)



### TRAVEL

1,200명과 해외 워크숍  
다녀온 썸 폰다

[+자세히 보기](#)



### ADVERTISING

그대들은 어떻게 '여행'할 것인가

[+자세히 보기](#)



뉴스레터를 새롭게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고  
수신을 원치 않으신 분들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3-21 12층-14층 | 발행인 : 남궁철

© SM Culture&Contents, All rights reserved.

[PDF 다운로드](#)

